

◀기쁜 우리 날들▶ "축의금 만 삼천원"

이 철 환

약 10여 년 전, 자신의 결혼식에 절친한 친구가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친구의 아내가 대신 참석하여 눈물을 글썽이면서 축의금 만 삼천 원과 편지 1통을 건네주었다.

친구가 보낸 편지에는

"친구야! 나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장사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밤 분유를 끓여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만 삼천 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개 밥그릇에 떠있는 별이 돈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울먹이던 네 얼굴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 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농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가서 먹어라.

친구여, 이 좋은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 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친구가-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하나를 꺼냈다.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 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가 가슴 아파 할까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 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고향의 이름▶ 우동마을, 파전리
경상남도 김해의 우동마을과 경상북도 군위의 파전리.
겨우내 입맛 들게 했던 땅굴 속의 무우가 밀바닥 드러내며 떨어질 쯤이면 어김없이 봄은 지천에 썩과 냉이를 내어 놓던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뿌리지 않았는데도 따스한 봄 별 희롱하며 바꾸니 가득 거두게 해주시던 하나님! 자연과 함께 살아가던 순박한 사람들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2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7월 2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어렵더이다



거룩한 책 하긴 쉬워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순수한 책 하긴 쉬워도 어린아이처럼 살긴
사실 어렵더이다.

믿음이 있는 책 하기는 쉬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니고 살기는
참말 어렵더이다.

물질의 허영에서 벗어나는 책 하긴 쉬워도
자신이 가진 것 다 버리고
철저하게 가난한 자 되기는
진짜 어렵더이다.

남을 돕는다고 떠들기는 쉬워도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말없이 돕기는
정말 어렵더이다.

자연을 아끼는 책 하기는 쉬워도
풀한 포기 새한마리와 대화하며 노래 들려주기는
더욱 어렵더이다.

겉으로 사랑하는 책 하기는 쉬워도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렵더이다.

◀말씀따라 행하기▶
사람의 수를 세기보단
내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를
즐거 세어라

◀인품따라 행하기▶
저 좋은 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 일 에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Calvary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2(시96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466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장현중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43-46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12제자 연구(5) "계산적이었던 사람 빌립"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89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7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차 량	안 내
2	장현중		최재학	본당:노은숙 이금선
9	정덕수		장현중	
16	정희자	예배부장	권용일	
23	최재학		고성일	현관:정덕수
30	현석호		백제성	최재학

◆7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2	성찬주일 월초새벽기도회(1) 피택자교육(7)
9	믿음의어머니기도회(11) 구역예배(14)
16	창립기념주일 임직식, 식사교제
30	이삭줍기주일

『교 회 생 활』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찬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금 5:55	청년부:토 오후 5시

7월입니다. 시이저라 불리운 로마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Julius Caesar 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 이름에서 따온 July. 세파와 겨울추위에 움츠려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7월이 되라는 뜻이겠지요!

- 1.교우소식
*<결혼> 박소영(청1.학생부교사). James Zhou. <8일(토) 오전 11시>
*고국과 타국으로 여러교우(14명)들께서 출타중입니다. 집떠나면 고생이라는 데 건강들 하시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고 귀국하기를 기도합니다
- 2.모임: 권사회.안수집사 부인(임직자 포함). 예배 후 유아실
- 3.『남성만의 르네상스』:2개월에 한 번 갖는 남선교회 모임입니다
<일시> 7일(토) 저녁7:30. 남성들끼리 모여 신앙을 위한 계획과 친교를 나누는 남성교우들만의 겨울밤이 되십시오.
*식사는 나누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4.결식자급식봉사 <8일(토) 오전10시-오후1시>. 급식봉사위원
- 5.모집:『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단』
*우리교회건축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많이 자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기도단> 정덕수 장로 *<여성기도단> 김순자 권사
- 6.예배 후 Tea Time을 Hall에서 갖습니다
*Hall 내부공사가 11월이 되어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Tea Time을 Hall에서 갖습니다
- 7.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Heater를 피워도 넓고 높은 겨울 예배당은 좀 추웠습니다. 거북해도 따뜻함이 우선이어서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때는 내복을 입고 오게 되더군요.

◀작한 시인▶ 소녀들

양정자

철쭉, 산당화, 매화, 모란, 라일락,
다투어 피어나고 있는
향그런 5월 학교 꽃밭 앞에서
한 때의 소녀들이 재깘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네
피어나는 꽃보다 훨씬 더 눈부신
자기들이 꽃인 줄 까마득히 모르는 채

애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도 세숫물만 닦고 돌아서는 너희의 모습에 어른들은 황홀해 한다는 것을, 크래커 하나 입에 넣고 오물 거리는 너희들 모습만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우리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런 너희는 우리들이 허물처럼 갖고 사는 시기,질투,미움은 없는듯이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에 꽃이 있다면 너희가 아니겠니?